

예비유아교사가 학교현장실습 과정에서 인식한 수업 실습의 어려움 탐색

Exploration of difficulties in teaching practice recogniz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n the kindergarten practicum

엄 은 나 (유아교육과)

Eom, Eun-Na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iculties of class practice recogniz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during the kindergarten practicum process. Also it should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pre-practice education and class practice guidance. According to 209 journal articles, written by 54 third-year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a university in Gyeonggi-do about their class practice experiences during kindergarten practicum. The data were collect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had 'difficulty in having class confidence', 'difficulty in meeting children's eye level', 'difficulty in smooth class progress', and 'difficulty in coping with unexpected situ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rection of pre-practice education and class practice guidance was suggested to reduce and improve the difficulties of pre-service teachers in class practice.

Keywords : 예비유아교사(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학교현장실습(kindergarten practicum)

수업 실습(class practi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수업은 교사가 수행하는 직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유아 중심의 발현적 성격에 따른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교사의 수업역량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은 곧 수업 전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원임용 절차과정에서의 수업 시연 평가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주요 지표에도 교사의 수업역량 및 전문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각 교원양성대학에서는 예비교사의 수업역량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예비교사가 유치원수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습을 통해 수업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학교현장실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수업은 한마디로 교사의 실제 수업 행동이나 행위를 의미하며 교사의 역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핵심적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이다(진영은, 함영기, 2009; 황혜경, 윤희경, 나은숙, 2017). 또한 교사가 가진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을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뜻한다(Lin & Spodek, 1994; Morrison, 1996). 유아교육기관의 수업은 유아의 흥미와 경험, 사전 개념 등을 교육 내용과 통합하여 유아가 즐겁게 배우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수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수업 전문성은 수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변화에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는 가르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수업역량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함지선, 2017). 수업역량에는 수업 운영에 필요한 이론적 역량과 실천적 역량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즉 수업역량은 수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 기술, 태도와 같은 인지적 역량과 함께 수업에 대한 동기나 정서적 능력과 같은 내면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김연수, 2017; 백순근, 함은혜, 이재열, 신효정, 유예림, 2007).

교원양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특히 수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태도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안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수업을 전개하며,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줄 아는 역량 있는 교사를 길러내는 것에

교육의 중점이 있다. 예비유아교사가 수업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전교육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는 학생의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 각 교원양성기관이 다각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유아교사 양성대학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수업 실제 관찰 및 수업사례 분석, 수업계획안 작성, 교재교구의 제작과 활용, 모의수업 등 다양한 교수 활동 기회를 제공해주어 예비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배성아, 안정희, 2014). 모의수업은 교원양성과정의 교과 수업에서 예비교사의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는 다양한 유형의 수업 계획과 준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수업 실행 과정에서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교사의 역할을 연습해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수업을 관찰하는 기회도 가진다. 또한 담당교수 및 동료와 함께 수업 시연, 수업 참관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 내용을 공유하면서 수업 운영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박성덕, 김은정, 김경철, 2015).

그러나 수업역량은 교육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실제적 능력이므로 실제 수업 상황 맥락과 수업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수업에 대한 전문성은 교수 활동과 관련된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경험을 충분히 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의수업과 유아교육현장의 수업에는 가상의 수업 상황과 실제 수업 상황에 따른 분명한 차이가 있다(마지순, 고은현, 2010). 따라서 동료 학생들 앞에서 하는 수업 시연 뿐 아니라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유아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유치원현장실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 실습은 예비유아교사가 수업의 실재를 익히고 연습하여 수업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과정이다. 예비교사는 유치원 현장의 수업 실재를 참관하면서 유아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르고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이은희, 이일랑, 2016). 또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습 지도교사가 제공하는 조언을 참고하여 보다 적합한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배우게 된다. 아울러 예비교사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 및 점검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실제에 다시 적용해봄으로써 교수역량과 교수효능감을 구축하고(김정숙, 이은형, 2019; 최경남, 김현정, 2023; Aspden, 2017)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박성덕, 김은정, 김경철, 2015).

이와 같이 예비유아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학교현장실습에서의 수업 실습을 통해 수업의 실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즉 학교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수업 실습은 예비교사의 수업역량 증진을 위한 최적의 경험이 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예비유아교사의 수업역량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수업 실습의 교육적 의미를 조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승은(2019)과 김정주(2022)는 학교현장실습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의 변화를 탐색한 결과,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수업 실습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가 실습 초반부에 인식한 수업 어려움이 감소되고 수업 전문성이 향상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경남과 김현정(2023)은 학교현장실습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수역량과 교수 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 실제로 많은 예비교사들이 실습 기간 동안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실습 중에 수행하는 수업과 관련된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주, 2022; 유희정, 2018; 이경선, 2015; 이승은, 2019). 현직 유아교사들 역시 수업을 교사의 중요한 직무로 생각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3년 이하의 저 경력 교사일수록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김은영, 권미경, 조혜주, 2012).

수업 실습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가 반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수업역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어려움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예비교사들에게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실습 지도를 통해 어려움이 개선되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망한 그간의 연구들은 실습 전 과정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실습의 수업 실습에 초점을 맞추고 예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의 내용과 교사 교육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실습 초반부에 주로 경험하는 수업 형태인 단위 활동에 초점을 두고 수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요인을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배우고 체득한 수업에 관한 실천적 지식은 이후 교사로 임용되어 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수업 실습의 초기부터 드러난 어려움이 반복될 경우 이는 수업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 및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습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가 학교현장실습 중에 수행하는 수업 실습의 어려움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일 것이다.

1.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가 학교현장실습 과정에서 인식한 수업 실습의 어려움 내용을 분석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실습 사전교육과 실습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실습 지도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가 학교현장실습에서 인식한 수업 실습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3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54명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2022년 10월 중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 후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결과, 동의를 표시한 학생들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2학년 2학기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실재를 8회 참관하고, 관련 경험에 대한 성찰 내용을 개인 저널로 작성한 경험이 있다. 연구 참여자 모두 재학 중 6개 이상의 모의수업 실시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최소 3회~8회 정도의 개별 수업 시연을 경험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참여한 모의수업은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편람의 ‘학생 수업역량 제고’지표 관련 진단 기준(모의수업 실시 과정의 체계성, 피드백의 충실성)을 준수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과목의 모의수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지도교수와 동료 학생들 앞에서 수업 시연을 한 후 구성원 간 피드백을 실시하고 개별 성찰 저널을 작성하였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수업 시연 사례를 분석하고 성찰한 내용을 공유한 경험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현장실습 1주차에 지도교사의 수업을

참관하였으며, 실습 2주차에는 단위활동 수업 실습을 2회 하였고, 실습 3주차에는 연계 수업을 1-2회 실습하였으며, 실습 4주차에는 전일수업을 1회 실습하였다.

2.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학교현장실습 과정에서 인식한 수업 실습의 어려움 내용을 알아보고자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 중 수행한 단위 활동 및 연계 활동 수업에 대해 예비유아교사가 작성한 반성적 저널을 분석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학생 1인당 단위 활동 수업과 연계 활동 수업 경험에 대해 각 2편씩 4편의 저널을 작성하였으며, 216편의 저널 중 내용이 불충분하게 기술된 7편을 제외하고 총 209편의 저널을 분석하였다.

저널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되 유아 연령 및 수업 시기, 활동 유형 등 수업 운영에 대한 기초 정보 및 실습생 자신의 수업 실행 사례(수업 계획, 준비, 실행, 평가)를 기술하고, 수업 실습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도록 글쓰기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피하기 위해 학교현장실습이 종료된 이후 연구 참여자와의 개별 또는 소집단 면담을 실시하여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습 중에 이루어지는 실습생 담당 수업에서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세밀하게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업보다는 일과 운영 면에서의 어려움이 부각될 수 있는 전일(반일) 수업에 대한 저널 내용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의미가 불분명하게 기술된 저널의 경우, 개별 또는 소집단 면담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실습생이 수업 실습의 어려움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습 중에 학생들이 작성한 수업계획안과 자기평가 내용, 수업 실연에 대한 지도교사의 피드백 내용 및 실습생이 작성한 실습 자체 평가서 내용도 참고하였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저널 자료는 A4용지 432매 분량이었으며, 유아교육과 교수 2인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개방형 질적 자료 분석방법(김영천, 2016)을 참고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실습생들이 작성한 반성적 저널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수업 실습의 어려움이 충분히 표현된 단어 및 표현에 표시하고 기록하면서 1차 목록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기 싫은 수업, 자신 없는 수업, 긴장감과 걱정, 이전 수업에서의 실패감, 수업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연령 별 이해 수준, 너무 긴 설명, 유아의 사전지식, 경험이 많지 않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 지루해하는 행동, 수업 흐름의 끊김, 주의집중을 잘 못 시키는, 활동 중단, 상호작용의 어려움, 활동 참여 유도 어려움, 기대와 다른 유아 행동, 수업환경 변화, 연습했던 것과 다른, 시간 부족’ 등의 목록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1차 목록을 검토하여 유사한 주제들을 재분류하고 주제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범주화하였다. 끝으로 범주화된 주제별 응답에 담긴 의미와 맥락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주제별 코딩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주제어는 ‘수업 자신감 가지기의 어려움’, ‘유아 눈높이 맞추기의 어려움’, ‘매끄러운 수업 진행의 어려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의 어려움’ 이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널에 기술된 문장의 의미 해석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6인에게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박사학위(유아교육학 전공)를 소지한 전문가 2인에게 의뢰하여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 실습에서 인식한 어려움은 ‘수업에 자신감 가지기’, ‘유아의 눈높이 맞추기’, ‘재미있고 매끄럽게 수업 진행하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로 요약될 수 있다.

3.1.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수업 실습의 어려움

1) 수업 자신감 가지기의 어려움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란 ‘실습생 자신이 맡은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흥미, 기대, 성취감, 자신감 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습 중에 수행

하는 수업은 그 하나하나가 평가 대상이며, 실습과목의 점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습생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낮은 자신감은 실제 수업 수행에서의 부정적인 성취로 이어졌다(인터뷰, 11.08. 예비교사 17, 40). 본 연구의 결과, 예비교사들은 ‘사전 경험 부족으로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이전 수업에서 실패감을 느낀 경우’, ‘학급에 활동적인 성향의 유아가 많은 경우’,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선생님께서 주안을 보여주시며 음악감상 ‘슈만-즐거운 농부’와 동화 ‘할머니의 농사일기’를 연계 수업으로 구성하라고 말씀하셨다. 계획을 짜 당시 음악감상 수업을 보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막막했다. 기준으로 삼을 경험이 없었기에 수업 때 배웠던 책들을 살펴보며 계획을 작성하였지만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저널(10.12. 예비교사 22)

실은 수업을 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다. 게임은 원래 잘 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했고, 담당 학급 유아들이 워낙 활동적이어서 수업을 하기 전부터 망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동적인 활동을 준비하려니 걱정이 많이 되었다. 평소 담임선생님이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유아들이 있는데 내가 수업을 하면서 유아들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저널(10.14. 예비교사 31)

특히 이전 수업을 통해 실패감을 경험한 경우에 자신감이 더욱 낮아졌다고 했으며, 실습생의 입장에서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실패했다는 느낌은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털어낼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매우 힘든 심리상태(인터뷰, 11.8. 예비교사 28)임을 알 수 있다. 대다수 실습생들이 “쓴 맛을 제대로 보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수업에 대한 실패감은 교수자의 역할을 담당할 실습생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후 수업에 대한 자신감에까지 부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야기나누기 수업은 처음 해보는 수업이라서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다가 이전 주 수요일 음악감상 수업에 대해 실패감을 크게 느끼고 나니 이야기나누기에 대해서도 더 걱정이 되었다. --- 중략--- 수정된 계획안이 내 것으로 완전히 익혀지지 않았고 처음 해보는 수업이다 보니 겁도 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 힘들었다.

저널(10.13. 예비교사 17)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 경우, 심리적으로 편안치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좋은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억지로 수업을 준비하고 실연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 경험까지 가중되어 수업에 대한 더 큰 실패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실습의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마음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새노래와 게임 수업에 대해 자신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게임수업을 하라고 하셨을 때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 잘하는 수업만 해서 칭찬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자신 없고 하기 싫은 수업을 하려니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매우 걱정이 되었다. --- 중략 --- 그래도 잘 준비했다는 선생님의 칭찬과 유아들이 재미있어서 또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퀴즈도 열심히 짜고 미션도 8가지를 생각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잘하지 못해서 더 속상하고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저널(10.12. 예비교사 9)

2) 유아의 눈높이 맞추기의 어려움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은 '유아의 발달수준이나 특성, 흥미와 요구를 존중하면서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생들은 기본적으로 유아의 연령 별 발달수준이나 선호 경향에 맞는 내용과 방법을 반영하여 수업을 계획하는 것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는 유아가 쉽게 이해하고 즐겁

게 참여할 수 있는 유아 중심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예비교사의 인식에서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인터뷰, 11.10. 예비교사 2, 40). 그러나 여러 전공과목 수업과 현장 실습을 통해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비교사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유아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

게임 방법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지만 릴레이 방식으로 게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유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수업을 계획할 때 잠시 우려했던 대로 만3세에게는 어려운 방식이었고 더구나 게임 경험이 많지 않은 유아들이 릴레이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저널(10.14. 예비교사 9)

특히 이야기나누기 수업과 같이 언어적 상호작용의 비중이 높은 수업의 경우, 많은 예비교사들이 수업에서 다룰 지식이나 정보, 개념 등의 범위와 수준을 예측하고 결정하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일 경우,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배우도록 돕는 적합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나누기 수업을 하기로 결정된 다음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룡에 대해 조사했다. 그 과정을 통해 실습생 스스로 새로 알게 된 지식은 많았지만 만5세가 이러한 지식을 아는 것이 연령에 적합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어렵고 고민이 되었다.

저널(10.18. 예비교사 24)

여러 환경보호 단체들을 소개해주었는데, 점점 유아들이 지쳐가는 표정을 보았고 “내용이 너무 어려웠나? 유아들에게 흥미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 후 평가에서 선생님은 유아들의 흥미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았냐고 물으시고, 각 단체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고 길었다고 말씀해주셨다. 유아와 주고 받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교사는 묻고 유아들은 답하는 같은 형식의 질문이 반복되면서 흥미가 사라진 것 같다 저널(10.20. 예비교사 11)

한편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표현활동을 전개하는 연계 수업(단위활동+단위활동) 상황이라면 기본개념을 다루고 학습할 기회를 유아에게 먼저 제공한 후에 표현활동으로 확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의 순서를 뒤바뀌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운영함으로써 연결된 두 활동 모두에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만4세는 아직 농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고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수업을 먼저 한 다음에 연계 수업으로 표현활동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유아들은 농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즐거운 농부가 되어보자고 흥미를 유도하고 모자와 호미 같은 소품을 활용했지만 농부가 일을 하는 것처럼 동작으로 표현해내지 못했다. 동화를 먼저 들려주면서 농부에 대한 지식을 더 알아본 후에 신체표현 활동을 했더라면 유아들이 좀 더 집중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유아의 사전지식이나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저널(10.17. 예비교사 50)

다음 사례에서처럼 예비교사들은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자료를 준비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꼈다. 예비교사는 꽃 화분이라는 매력적인 실물자료를 준비했지만 이는 유아의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돋보기와 같이 유아가 직접 만지고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했어야 함을 수업 후 지도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뒤늦게 인식하였다.

활동을 계획하면서 유아들이 꽃 화분을 실제로 보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아하긴 했지만 그냥 관찰하는 활동이 재미가 없었던 것 같다. 수업 평가 시 선생님께서는 유아들이 사용하도록 돋보기를 제공하거나 두 꽃의 차이나 비슷한 점을 찾아보기 과제를 주었으면 더 재미가 있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만3세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저널(10.20. 예비교사 42)

예비교사들은 준비한 수업 자료를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꼈다.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활동 자료를 준비하면서 성인이 기대한 대로 유아들이 자료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실제 유아의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 당혹감을 표현하였다. 예컨대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연령의 유아에게 ‘한삼’과 같은 새로운 활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유아들이 먼저 활동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고 놀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여 친숙해진 다음에 동작 표현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수업 계획으로 반영하는 것이 예비교사에게는 적잖은 어려움으로 여겨진 것이다.

노랫말에 맞춰 탈춤을 추는데 오랜 이야기나누기로 지친 상태에서 노랫소리마저 작아서인지 유아들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중략--- 한삼을 낀 상태에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춤을 춰보도록 하니 그제서야 유아들이 즐거워하며 동작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 만3세에게는 한삼을 끼우고 움직여보는 것 자체를 놀이 삼아 즐거워하는 시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에는 연령별 발달에 잘 맞는 수준의 수업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널(10.13. 예비교사 19)

이러한 결과는 교원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유아의 발달적 요구와 특성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기회와 수업으로 연계하는 경험을 충분히 갖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매끄러운 수업 진행의 어려움

매끄럽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유아의 흥미를 모으고 유지하면서 순조롭고 매끄럽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교사들은 수업 실행 과정에서 유아들이 재미있어하고 집중하는 모습은 실습생을 가장 힘 나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원천이라고 하였다(저널, 10.11. 예비교사 40). 이는 평소 유아들이 흥미를 보이며 집중을 잘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생각하는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인터뷰, 11.9. 예비교사 34, 30, 16, 42). 본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주어진 시간을 지켜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마무리 지었을 때 안도감과 성취감을 느꼈으며, 그러한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나타냈다. 어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도입 활동 아이디어의 부족’, ‘수업 진행의 유연성 부족’, ‘유아의 참여 지원하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실습생들은 수업의 전 과정에서 유아의 흥미를 모으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였는데, 특히 활동의 도입 단계를 흥미롭게 시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도입은 어렵다. 유아들의 흥미를 확 끌어당길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수수께끼 아니면 손 인형만 생각났다. 더 기발하고 다양한 도입을 하고 싶었기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널(10.19. 예비교사 13)

예비교사들은 계획한 대로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하였을 때 안도감과 성취감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수업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수업환경, 내용이나 절차, 접근 방법에 변화를 주는 식의 유연한 수업 운영을 시도하지 못한 채 계획했던 그대로 수업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사전 계획의 틀 안에 갇히는 것은 실습생이 수업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기존 계획을 강행함으로써 수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앞에 나온 유아가 작은 바구니 속에서 콩의 성장 모습을 찾느라 뒤적이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앉아있는 유아들이 점점 산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연습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잘못된 점을 느꼈다. 저널(10.13. 예비교사 33)

유아들은 ‘쌀이 튕기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책상 위에서 쌀을 튕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유아들은 이야기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했다. 쌀이 통통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유아들이 바닥에 떨어진 쌀을 주워서 만지작거리느라 주의집중이 흐트러졌다. 잘못된 것은 알았지만 갑자기 대형을 바꾸면 더 소란해질 것 같아서 서둘러 활동을 마무리했다. 저널(10.18. 예비교사 38)

예비교사들은 수업 진행 과정에서 유아의 참여와 표현이 소극적일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는 아직까지 수업 실재에 대한 경험이 나 수업기술이 충분치 않은 것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와 함께 놀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유아들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 신체 표현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 했다.
 ”물이 끓고 있을 때 잡곡이 어떻게 움직일까?“ 라고 말해도 부끄러워

하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기대했던 다양한 신체 표현이 나오지 않고 유아들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였다.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실패감을 느꼈다.

저널(10.21. 예비교사 2)

예비교사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유아들이 흥분하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 수업의 흐름이 끊어진 상황에서 유아들의 주의를 환기하여 분위기를 정돈하는 것에 특히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유아의 행동을 신속히 통제하지 못한 것을 수업에 대한 실패로 인식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강당에서 유아들을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임을 회상하는 도중에 유아가 갑자기 장애물을 향해 뛰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옆의 유아와 장난을 치기도 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박수를 치며 유아의 집중을 유도하였으나 게임 수업은 정말 실패 그 자체였다.

저널(10.11. 예비교사 31)

갑자기 한 유아가 "재미없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너무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바람에 수업의 흐름이 끊겼다. 담임선생님께서 수업 중간에 자주 사용하시는 "--반 박수 세 번 시작, --반 박수 짹"이나 "선생님 보세요." 같은 것을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전혀 주의 집중이 되지 않았다. 또 다시 그 유아가 재미없어 라는 말을 하였다. 유아들이 산만해지기 시작했다. 유아들이 다 지루해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저널(10.18. 예비교사 26)

게임이나 신체표현 등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일 때 예비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유아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비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실습지도교사가 자주 사용하는 주의집중 전략 따라 하기'와 '서둘러 활동 끝내기'였다.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다. 하지만 유아들이 바닥에 붙여진 동그라미들을 보지 않으면서 마구 달리고 나는 계속 “바닥에 동그라미만 밟으면서 통과해주세요.”, “바닥의 선을 따라 걸어야 해요.”라며 게임규칙들을 외쳤지만 유아들의 소리에 내 목소리가 묻혀 전달되지 않았다. 일과 후 피드백 시간에 원감님께서 오늘 어땠냐고 물으셨는데 “엄망진창이었어요.”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게임 수업에 도전한 것은 좋았지만 게임은 정말 세심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저널(10.17. 예비교사 20)

4)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의 어려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는 ‘수업의 계획 및 준비 단계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생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비교사가 수업실습 중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요인이었다(인터뷰, 11.10. 예비교사 2, 14, 29, 54). 유아 교실의 수업 실재를 참관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유아와의 수업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한 만큼 갑작스러운 문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비교사들이 수업 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 상황으로는 ‘유아가 알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어 흥미가 낮은 것’, ‘유아가 활동 참여를 거부하는 것’, ‘수업 중 자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자기 수업환경이 변경되었을 때’ 등이 있었다.

유아들이 이렇게 많이 이 노래를 알고 있는지 몰랐고, 노래를 배우기도 전에 지루함을 보이는 유아들도 있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한 내용이나 순서를 바꾸어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한 두 번 불러보는 것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직접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울동을 하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아는 유아들은 재미없다고 하고 노래를 모르는 유아들은 흥미를 완전히 잃어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저널(10.13. 예비교사 33)

팀별로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유아가 생겼다. 내가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선생님께서 그 유아를 데려가서 한쪽 구석에 같이 앉아 친구들이 하는 걸 보자고 이야기해주셨다.

저널(10.14. 예비교사 1)

동화를 읽으며 칼집을 낸 부분이 울퉁불퉁해서 부드럽게 내려가지 않았다. 집에서 연습했던 것과는 달라서 많이 당황스러웠다. 집에서는 편한 자세로 동화를 움직이니 잘 되었던 것이고 교실에서는 긴장을 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동화를 만들게 된다면 칼집을 낸 부분에 종이가 울퉁불퉁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듬어야 하겠다. 또한 당황하지 않도록 움직이는 부분을 더 많이 연습해야 할 것 같다.

저널(10.19. 예비교사 7)

수업 당일 갑자기 게임 장소가 강당으로 변경되었고 강당에서 수업 직전까지 생일파티를 해야 해서 수업 준비를 미리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리 게임 환경 세팅을 하지 못해 마음이 급해졌고 그로 인해 긴장하여 실수를 많이 하였다.

저널(10.12. 예비교사 13)

이와 같이 예비교사들은 수업 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수업 중에 일어났을 때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유아교실의 상황은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예측하기 힘들 만큼 가변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유아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업 실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학교현장실습에서 인식한 수업 실습의 어려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3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재학생 48명이 수업 실습 경험에 대해 작성한 반성적 저널 209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 과정에서 인식한 수업 실습의 어려움 내용은 ‘수업 자신감 가지기의 어려움’, ‘유아 눈높이 맞추기의 어려움’, ‘매끄러운 수업 진행의 어려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의 어려움’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수업 실습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 수업 자신감을 낮추는 주요인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해서 정보가 부족한 수업일 경우’, ‘이전 수업에서 실패감을 느낀 경우’,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업에 대한 실패 경험은 예비교사 자신의 교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며, 이후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예비교사의 학교현장실습 어려움이나 갈등에 관한 다른 연구 결과(김혜윤, 강유진, 2018, 이경선, 2015)와 맥을 같이 하며, 모의수업이나 수업 실습에서 예비유아교사의 내면적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지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수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실습 사전교육을 통해 다양한 수업의 실재를 경험하고 익숙해지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교사 모두가 개별적으로 수업의 전 과정을 계획, 준비하여 실행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해보는 방식으로 모의수업을 운영하여 수업 실습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수업 시연 후의 평가 뿐 아니라 수업의 계획 및 준비 과정에서 교수자-학습자 간 수업협 의와 피드백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수업 안정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수업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업 자료는 실습지도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업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 준비하도록 하고, 자료 제작에 전력하기보다는 수업에서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이승은, 2019). 아울러 유아들이나 지도교사로부터의 반응이나 평가가 예비교사의 수업 자신감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

한 요인이라는 점(인터뷰, 11.7. 예비교사 24, 22, 42, 2)을 참고하여 수업 계획과 준비, 평가 단계에서의 피드백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수업 실습 과정에서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수업 실습에서 유아와의 상호작용 어려움, 흥미 유지의 어려움, 유아 간 발달 차이를 고려하는 것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다고 한 마지순과 고은현(2010), 이승은(201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예비교사들은 관련 교과목 수업과 두 차례의 현장실습을 통해 자신이 유아발달 이해와 교수학습 및 유아 중심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인터뷰, 11.10. 예비교사 2, 29, 32, 33) 고 생각했다. 따라서 수업의 계획과 준비 단계에서 '유아의 흥미와 이전 경험, 지식수준에 맞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유아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함을 느꼈으며, 이로 인한 수업 실패감을 경험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 유아를 직접 접해본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유아들의 다양한 특성이나 요구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전 실습에서 경험한 내용을 현재의 수업 실습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따른 시행착오를 통해 어려움을 느낀 결과일 수도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의 흥미와 특성, 요구에 적합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키워가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의 많은 전공과목에서 유아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수업 형태로의 혁신적 전환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유아의 발달적 특성이나 요구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과목의 경우, 이론적 학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과 관련된 현장 관찰(참관)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직전교육과정의 모의수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수업의 현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아교육현장에 방문하거나 유아를 강의실로 초대하여 실제 유아들과 함께 하는 수업의 기회를 확대 운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수업 실습 과정에서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수업계획안을 암기

하여 외운 내용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수업의 흐름이 끊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자신이 작성한 수업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도입에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계획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이는 정돈되고 시행착오 없는 순조로운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고한 엄은나 등(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자 수업계획서에 의존하며, 수업의 내용과 순서를 고정된 것으로 고집함으로써 유아의 반응을 수용하지 못하였다고 한 유희정(2018)의 연구 결과와도 관련된다.

2019 개정 누리과정(교육부·보건복지부, 2019)에서는 유아 및 놀이 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가 계획한 활동은 유아가 주도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아 중심의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주도권을 적절히 유아와 나누어 가지면서 함께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유아와 교육현장, 실제 수업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한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미리 계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마무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사들이 수업 계획의 단계에서 세부 내용까지 철저히 꼼꼼하게 계획하되, 수업의 큰 틀 안에서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 중심 수업을 실현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수업 중 분위기가 어수선했을 때 즉시 통솔력을 발휘하여 정돈되고 집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한 수업 능력으로 생각하였으며(인터뷰, 11.9. 예비교사 12, 18, 24), 빠른 시간 내에 유아들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실패감을 느꼈다. 유아의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로 실습지도 교사가 사용하는 전략들을 모방하였으며, 유아들이 집중하여 조용한 상태를 성공적인 수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실습 중 수업 실행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유아의 주의집중 시키기'를 가장 큰 어려움 요인으로 보고했다고 한 이경선(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전교육과정에서의 모의수업 상황에서는 동료 성인학습자가 유아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주의력 분산의 문제를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함에 따라 실제 수업상황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지 못한 데에서 기인된 결과일 수 있다.

넷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수업 실습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유아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질문,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한 교육적 판단 능력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한다고 밝힌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마지순, 고은현, 2010; 이승은, 2009; 이춘자, 2008). 유아교사의 수업역량은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유아교육현장의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양은하, 2010).

따라서 예비유아교사 시기부터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서동미, 엄은나, 2019). 이와 관련하여 김경철과 임안나(2010)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수업 장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유아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희정(2018)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수업을 통해 실제 수업 상황과 최대한 근접한 맥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요컨대 예비유아교사들이 현장실습을 포함한 직전교육과정에서부터 유아의 흥미와 관심의 변화를 포함하여 수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변화를 즉시적으로 반영하면서 수업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4.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 과정에서 인식하는 수업 실습의 어려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습 사전교육과 실습 기관의 수업 실습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 사전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수업 실습의 어려움은 모두 유아와 교육현장 및 수업 실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유아와 함께 하는 수업 실제를 반복적으로, 충분히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아관찰, 수업

참관, 수업사례 분석, 수업참여, 수업 시연 등 수업과 관련된 현장 연계 활동이 충분히 안배되도록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이 수업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실천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 사전교육의 현장성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수업 실습 지도의 체계성과 내실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비교사들이 수업 실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실습 경험이 쌓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되기도 하고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개선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가 실습 지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실습지도교사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울러 실습 기관과 교원양성대학 간 협력을 통해 '수업 실습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실습지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수업 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습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습 기관 간에 실습 지도의 질 편차를 줄이고 충실한 실습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수업 성공 경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가 수업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는 수업역량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수업에 성공했다는 기분 좋은 느낌과 만족감은 다른 어려움 요인을 극복하고 현재 수업에 집중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동인이 된다. 따라서 개별 예비교사의 수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업의 전 과정(계획, 준비, 실행, 평가)에서 세심한 지원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지도교사 - 학생 간 수업협의를 통해 수업의 계획 및 준비 단계에서의 사전 피드백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수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예비교사가 수업에 대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여 수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수업 시연 후에 이루어지는 피드백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수업 강점과 보완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수업 성찰 저널 쓰기 와 같은 체계적인 수업 반성을 통해 예비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 경험을 꼼꼼히 되짚어봄으로써 수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점을 찾고 다음 계획으로 반영하도록 안내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2019 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부.
- (2) 김경철, 김안나 (2010). 예비유아교사의 모의수업을 통한 수업분석의 경험. 유아교육학논집, 14(1), 399-424.
- (3) 김연수 (2017). 유아교사용 수업역량 평가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은영, 권미경, 조혜주 (2012). 교사양성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과 운영 및 교사의 직무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2-07. 서울: 한학문화.
- (5)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1. 아카데미프레스: 경기.
- (6) 김정숙, 이은형 (2019). 예비유아교사의 학교현장실습 관련 연구동향 분석: 1996-2018년 국내학술지 논문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4(2), 189-210.
- (7) 김정주 (2022). 교육실습 기간 중 수업실습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 방안 고찰. 인문사회21, 13(4), 2063-2077.
- (8) 김혜윤, 강유진 (2018). 반성적 저널을 통한 유아교육과 교육실습생의 수업경험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8), 547-556.
- (9) 마지순, 고은현 (2010). 예비유아교사의 모의수업과 현장수업 경험에 의한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30(1), 251-273.
- (10) 박성덕, 김은정, 김경철 (2015). 예비유아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반성적 모의수업에 대한 실행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4(1), 197-228.
- (11) 배성아, 안정희 (2014).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저널에서 나타난 수업시연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의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1), 393-417.
- (12) 백순근, 함은혜, 이재열, 신효정, 유예림 (2007). 중등학교 교사의 교수역량 구성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8(1), 47-69.
- (13) 서동미, 엄은나 (2019). 예비 유아교사의 수업역량 및 문제해결능력이 직무수행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4), 109-136.
- (14) 양은하 (2010). 교수역량 진단도구 개발: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엄은나, 서동미, 이경민 (2010). 유치원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14(2), 271-298.

- (16) 유희정 (2018). 예비유아교사들의 모의수업 경험과 학교현장실습 중 수업수행을 기반으로 한 모의수업에 대한 생각.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1), 217-250.
- (17) 이경선 (2015).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실습기관에서의 수업실연의 어려움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5(3), 211-230.
- (18) 이승은 (2019). 교육실습을 통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수업전문성에 대한 인식 변화 탐색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9(2), 1-17.
- (19) 이은희, 이일랑 (2016). 예비유아교사의 현장수업 경험에 관한 탐색-유아과학교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6(2), 83-103.
- (20) 이춘자 (2008). 사전실습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경험한 교육내용 및 정서 분석. *육아지원연구*, 3(2), 75-97.
- (21) 진영은, 함영기 (2009). 수업전문성 재개념화 연구 동향 및 과제. *열린교육연구*, 17(2), 47-71.
- (22) 최경남, 김현정 (2023). 학교현장실습 전후가 예비유아교사의 교수역량과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21*, 14(2), 3153-3165.
- (23) 함지선 (2017). 예비체육교사의 수업시연 경험을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 요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6), 151-172.
- (24) 황혜경, 윤희경, 나은숙 (2017). 유아교육기관의 좋은 수업에 대한 유아교사, 학부모,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비교. *열린부모교육연구*, 9(2), 195-218.
- (25) Aspden, K. M. (2017). The complexity of practicum assessment in teacher education: An examination of four New Zealand case studies. *Australi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2(12), 128-143.
- (26) Lin, Y. & Spodek, B. (1994).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s images and their classroom practice. Paper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 A., April. Eric ED 370 916.
- (27) Morrison, M. (1996). An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teacher's reflective practice. *Education Today*, 46(2), 43-47.